

##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입양의 이해 및 평가

박창우(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논문초록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기독교의 관점 즉, 성경에 근거하여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다.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울 의지가 없을 때, 사회가 그 아동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친부모-자녀와의 혜택과 자격을 갖도록 제공하는 법, 제도,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입양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이 될 수 있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혈연중심적인 문화와 입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입양을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별반 차이가 없어 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통해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입양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이고, 입양은 요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매우 존귀한 일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한 행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부모됨은 혈연에 대한 생물학적인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자신에게 맡겨 주셨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위탁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헌신된 노력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국외입양 그 자체에 대해 비판하기 보다는 국외입양을 우선시하려는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사회구조와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사실을 공개한 입양 삼자가 차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복지, 입양, 사회복지

### I. 서론

#### 1. 문제 제기

입양기관에 근무했었다는 경력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다.

“아직도 해외로 입양을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이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질문 이라기보다는 왜 아직도 국외입양을 보내느냐는 원망조의 힐난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sup>1)</sup>.

아동은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자원으로 모든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입양은 아동이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헤어져 자신을 키워줄 가정이 없는 경우에 사회가 아동을 위해 영구가정을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2)</sup>.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복지서비스가 인간의 게으름, 나태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의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특성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과 죄인의 이중적 특성을 지닌 존재이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입양도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입양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입양된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입양인들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중적인 측면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 등으로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왔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이것이

- 
- 1) "최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입양을 위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수속비용 면제, 의료비용 지원, 입양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응에 대해 몇몇 국제 자선단체들은 지진 참사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입양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상황에서 입양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2010.1.21 인터넷 기사)." 이와 같이 입양사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 2) 사회복지 형성이론 조차 사회복지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형성이론 중 사회 양심론은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보는 반면(Baker, 1979: 178), 음모이론은 지배 계층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보고 있다(현외성, 2008: 84-85).

진리라고 믿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그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느냐 출석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이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닌가이다. 따라서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입양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sup>3)</sup>.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양에 대한 견해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하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현상과 사건에 대해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입양사업을 바라보고 실천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입양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다고 해서 입양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칭송하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입양의 어떠한 측면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양사업의 명암(明暗)을 모두 살펴보아 밝은 쪽을 강화하고, 어두운 측면을 줄이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의 내용 및 의의

본 연구는 우선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간과 사회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입양의 개념 및 역사, 기본 원칙, 우리나라의 입양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입양의 의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에 대한 쟁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그

3)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양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가 성경에 근거해야지 비그리스도인이 내세우는 비성경적인 이유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기독교적 학문은 세속적인 학문과의 다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하게 학문을 하는 것이다(Brandsen & Hugen, 2007: 351).”

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입양과 입양의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과 평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데 있다.

## II.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인간과 사회

세계관이란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들이다(Sire, 1976: 8).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여 주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인간은 본질상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개인의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양승훈, 2005: 35).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세계관 중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을 말한다(이승구, 2004: 16).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창조(Creation), 타락(Fall), 구속(Redemption)이라는 뼈대 위에서 발전되어 온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인간과 사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본 인간

창조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특징과 하나님 형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피조물이

기 때문에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역동적인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 특성을 갖는다(양승훈, 2005: 65). 둘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설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인간들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Erickson, 1989: 112).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한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이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Hoekema, 1986: 28). 인간은 인간 밖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로봇과는 다른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동시에 능력을 갖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이다. 이를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도 하는데, 문화명령이란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문화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인간,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간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는 자연을 돌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특징과 피조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한 가지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바른 인간관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두 가지 특징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하여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의 특성과 피조물의 특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특성을 가짐으로써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불안<sup>4)</sup>을 느끼게 되는 존재이다. 인간이 이러한 불안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는 일이며(김세윤, 1997: 16-19), 이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적 특징인 자유를 과도하게 인식하여 자기의 유한성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거부하였다(신원하, 2009: 183).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자신의 유한성에 기초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를 잘못된 욕망에 몰입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Niebuhr 1941a: 180-182). 인간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등과 같은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독립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이고,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의 활로를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리는 행위였다(김세윤, 1997: 20). 이렇게 죄의 본질인 교만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타인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진정한 자아로부터도 소외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적인 소외로 인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다(김세윤, 1997: 20). 결국 죄로 인하여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고,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셨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sup>5)</sup>을 부

4) “불안은 유한한 자기가 자기를 유한한 것으로 인식하는 자기 앎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한성처럼 존재론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불안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극복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유한한 존재인 인간도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Kierkegaard, 1844: 67).”

5)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인간은 순간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이미 구속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멀고 먼

여받았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지닌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구속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베풀어진 것이지만 인간이 이것을 의지적 결단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함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본래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셨고,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2.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본 사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와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사회는 인간의 성격, 발달, 행동, 욕구 등 인간의 모든 측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간의 행복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질, 즉 사회의 욕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순응하고, 개인의 요구에 맞게 사회를 얼마나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권중돈·김동배, 2005: 23). 따라서 인간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본 사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창조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는 온 우주에 미치며, 따라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대상이며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책, 제도, 법률, 문화 등과 같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제도들의 궁극적인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뒤틀려진 것도, 왜곡된 것도 없이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양승훈, 2005: 101)."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각종 제도와 권세를 제정하신 후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세상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 인간은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인간 타락의 영향으로 피조 세계의 각 영역들은 가상적인 자율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피조 세계의 각 영역들 간에는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이 발생했다(양승훈, 2005: 225). 다시 말해, 피조 세계는 원래 선한 것이었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타락 상태에 빠진 세상과 사회제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셨다. 구속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의 범죄로 왜곡된 피조 세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타락의 범위가 피조 세계 전역에 걸친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구속의 범위 역시 타락하고 피폐한 모든 피조 세계(가시적인 세계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적 세계, 사회구조 등)를 포함하고 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양승훈, 2005: 102-10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인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맞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현 시대에 완전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실체인 동시에 미래에 성취될 하나의 약속으로서 현재인 동시에 다시 올 미래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현재적이거나 순전히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존재하며,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과 사회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한 가지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바른 사회관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6)</sup>.

물론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분투해야 마땅하다<sup>7)</sup>. 인간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살롬(하나님 나라)이 임하기를 기다려서만은 안 되고(Wolterstorff, 1983: 149), 살롬(하나님 나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sup>8)</sup>.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 내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근사치적 접근을 위해 분주히 노력해야 한다<sup>9)</sup>.

결국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관점을 균형 있게 적용하여 사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회는 뒤틀려진 것도, 왜곡된 것도 없이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은 사회였으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피조 세계가 구속되었으며, 그 결과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않지만 ‘이미’ 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 III. 입양에 대한 이해

#### 1. 입양의 개념 및 역사

아동은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자원으로 모든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따뜻

6) " '이미' 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승리주의로 이끌어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절정에 이른 나라에만 속한 완전을 현재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 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패배주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내는 '이미' 와는 병존할 수 없는 계속적인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Stott, 1986: 457)."

7) "비록 구속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기에는 하나, 그 자유의 실행에는 인간의 책임이 포함된다. 인간은 로봇이나 컴퓨터로 작동되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Hoekema, 1986: 390)."

8)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리라는 희망은 가질 수 없다. 그 나라는 영원히 속한 나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목표라고 한다면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Temple, 1942: 82)."

9) "완전한 사랑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에 대한 근사치적 접근은 가능하며, 인간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Niebuhr, 1941b: 323-324)."

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입양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제공해 주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다시 말해, 입양은 아동이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헤어져 자신을 키워줄 가정이 없는 경우 사회가 이 아동을 위해 영구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표1〉 우리나라 입양제도 및 정책 변화

시기	입양제도 및 정책 변화	추진 내용
한국전쟁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입양	전쟁고아 및 혼혈아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국외입양 추진
1961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고아입양 특별법 제정
1962~1970	국내입양 활성화	‘고아 한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 전개
1970~1975	국외입양의 제한	북구유럽 국가들로의 입양 중단
1976	국내입양 부양책	입양특별법 제정
1976~1980	국외입양의 단계적 축소	1985년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
1981~1988	국외입양 전면 개방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 활성화
1989~1994	국외입양 단계적 축소	1996년에 국외입양 전면중단계획, 국내입양 활성화 모색
1994. 8	국외입양 전면 금지정책 취소	가정위탁보호제 도입
1996	국내입양 확대 및 국외입양 자연 감소	장애아와 혼혈아 외에 국외입양 전면금지
1997	국외입양 연차별 감축 추진	국외입양 허가의 강화
1998	국외입양 허가의 강화 유보	국외입양 허가의 완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장애아의 입양 활성화 모색
1999	국내입양 규제조치 완화	양친될 자의 연령 완화로 요보호아동 중 연장아동의 입양기회 확대
2000	입양법 목적 강화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통한 복지증진 명시
2002	장애아입양 활성화 대책 시행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양육비 및 의료비 혜택 확대
2005	입양의 날 제정	매년 5월 11일 입양의 날로 제정
2006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시행	입양요건 완화, 입양휴가제 도입, 국내입양 우선추진, 입양수수료 및 입양수당 지급

자료 : 박기석(2009: 40)의 표를 재구성함

<표 1>은 우리나라 입양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천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외부의 자극이나 요구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외입양관련 정책은 필요에 따라 전면개방과 축소, 금지 사이를 오가며,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입양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2. 입양의 기본 원칙

입양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오정수·정익중, 2008: 320-322). 첫째, 아동에게 최선의 장소는 친가정이다. 친가정이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줄 수 없음이 분명할 때에만,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입양 서비스 이전에 가족복지서비스가 먼저 제공되어야 하며, 친부모의 아동양육 의무와 친가족보호를 지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에게 장기 대체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할 때, 입양은 대체 보호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입양은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 영속감, 친밀감, 소속감을 아동에게 주기 때문이다.

셋째, 입양 가정 선택 시 우선적으로 종교나 민족적 배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아동은 친부모와 동일한 종교나 민족적 배경을 지닌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은 아동의 종교적, 민족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sup>10)</sup>.

넷째, 입양은 아동 - 양부모 - 친부모 중에서 우선적으로 아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적합한 가정을 찾는 일이지, 자녀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를 찾는 일이 아니다.

다섯째, 입양의 필요성 여부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영유아기의 경험은 한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

10) “많은 국외 입양인들은 국외입양으로 인해 큰 상실감에 빠지고, 소수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 특권, 기회 등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다(Price, 2005: 250).” 국내 입양이 국외입양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동 최선의 이익 때문이다.

문에 가정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가능한 빨리 가정을 찾아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우리나라의 입양 현황

〈표 2〉 입양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 비율
2001년	4,206	1,770	2,436	42.1
2002년	4,059	1,694	2,365	41.7
2003년	3,851	1,564	2,287	40.6
2004년	3,899	1,641	2,258	42.1
2005년	3,562	1,461	2,101	41.0
2006년	3,231	1,332	1,899	41.2
2007년	2,652	1,388	1,264	52.3
2008년	2,556	1,306	1,250	51.1

우리나라의 입양 현황은 <표 2>와 같다. 국내입양은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혈연중심적인 문화, 입양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외입양은 정부의 국외입양 축소정책으로 매년 약 5~10% 정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의 비율이 전체 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0%가 넘고 있는데, 이는 국내입양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국외입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입양아동의 성별에 대한 현황은 <표 3>과 같다. 국내입양아동의 성별은 여아의 비율이 약 65%로 남아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여아선호가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대흐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국내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선호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입양이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적합한 가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아이를 찾는 일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입양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입양을 보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남아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3〉 입양아동 성별

(단위 : 명, %)

연도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계	남	여	계	남	여
2001년	1,770	743(42.0)	1,027(58.0)	2,436	1,364(60.0)	1,072(40.0)
2002년	1,694	632(37.3)	1,062(62.7)	2,365	1,379(58.3)	986(41.7)
2003년	1,564	543(34.7)	1,021(65.3)	2,287	1,367(59.8)	920(40.2)
2004년	1,641	494(30.1)	1,147(69.9)	2,258	1,385(61.3)	873(38.7)
2005년	1,461	482(33.0)	979(67.0)	2,101	1,353(64.4)	748(35.6)
2006년	1,332	485(36.4)	847(63.6)	1,899	1,253(66.0)	646(34.0)
2007년	1,388	541(39.0)	847(61.0)	1,264	722(57.1)	542(42.9)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른 입양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입양아동 건강상태

(단위 : 명, %)

연도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계	비장애	장 애	계	비장애	장 애
2001년	1,770	1,756(99.2)	14(0.8)	2,436	1,693(69.5)	743(30.5)
2002년	1,694	1,678(99.1)	16(0.9)	2,365	1,538(65.0)	827(35.0)
2003년	1,564	1,544(98.7)	20(1.3)	2,287	1,638(71.6)	649(28.4)
2004년	1,641	1,634(99.6)	7(0.4)	2,258	1,553(68.8)	705(31.2)
2005년	1,461	1,434(98.2)	27(1.8)	2,101	1,364(64.9)	737(35.1)
2006년	1,332	1,320(99.1)	12(0.9)	1,899	1,186(62.5)	713(37.5)
2007년	1,388	1,348(97.1)	40(2.9)	1,264	764(60.4)	500(39.6)

아동의 건강상태는 국내입양의 경우 비장애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국외입양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미흡과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외입양의 경우 장애아동의 입양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의료문제가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밀입양은 입

양아동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양에 대해 숨기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공개입양은 공개의 범위가 가까운 가족 및 친지들에게만 알리는 것이고, 공개입양은 가까운 가족 및 친지들 뿐 아니라 이웃과 교육기관까지 모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공개입양 혹은 개방입양(open adoption)은 친생부모와 입양부모, 아동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에 의하여 정기적인 접촉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안재진, 2003: 7). 외국의 공개입양개념은 입양사실을 아동과 주변에 공개하고 친생부모와의 접촉까지 함께 초점(Hollnstein et al., 2003: 43-52)을 맞추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개입양개념은 아동과 주변에 알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공개입양 비율은 약 5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홀트아동복지회, 2008: 30). 과거에 비밀입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최근 들어 비밀입양의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공개입양의 장점 등이 널리 홍보되면서 공개입양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표 5〉 공개입양 비율(홀트아동복지회)

(단위 :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밀입양	73(13.2)	67(12.9)	68(12.7)	44(10.2)	42(10.8)	38(8.2)
제한공개입양	349(63.2)	318(61.0)	301(56.4)	205(47.2)	188(48.2)	162(34.8)
공개입양	130(23.6)	136(26.1)	165(30.9)	185(42.6)	160(41.0)	266(57.0)

#### IV. 입양의 의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기독교의 관점 즉, 성경에 근거하여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인간관이라는 기독교적 전제를 우리의 삶과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울 의지가 없을 때, 사회가 그 아동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

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친부모-자녀와의 혜택과 자격을 갖도록 제공하는 법, 제도,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같이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입양인데, 우리사회에서는 혈연중심의 문화와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이유로 입양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리스도인은 입양을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입양을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원하, 2003: 10-20; 강춘근·신민선, 2005: 9-50; 박창우, 2007: 66-75).

## 1.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역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혼혈을 거부하면서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구약의 몇몇 기사들을 보면 혈통이 언약 백성의 필수적인 것 또는 핵심적인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혈통이 언약 백성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시하였지만 결코 혈통 중심적 언약공동체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포괄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중심적 언약공동체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인종적 탁월성, 혈통적 독특성 또는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운 선택과 주권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주권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이다(신명기 7:6-8, 9:4-6).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언약 백

성을 삼으시는 데에 있어서 혈통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필수 요소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보다 분명해 진다.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 약속의 자녀가 된 자가 언약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다(로마서 9:7-11). 바울은 같은 혈통을 타고 났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욱신의 자녀인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선택한 것은 육체에 의한 유전적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는 피를 나누었는가 나누지 못 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혈통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은혜의 언약은 부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에게 확대되었으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혈통을 갖고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존재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입양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 2.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의복과 식물을 주시는 분이고, 아비 없는 이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는 분(신명기10:18)이며, 불드시는 분(시편146:9)이고, 도우시는 분(시편10:14)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과 힘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를 제도적으로 돌볼 것을 명령하셨다(신명기24:19-22).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신명기27:19)이라고 경계하시면서, 그들의 권리는 묵살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출애굽기22:21-25, 신명기24:16, 잠언 23:10). 그리고 여호와와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고 압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로 정죄하셨다(에스겔22:7, 예레미야7:6-7, 말라기3:5). 또한 한 개인의 경건과 거룩함의 수준은 그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판단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패하고 불의한 사회는 고아와 과부를 강탈하고 냉대한다고 말씀하셨다(이사야10:2, 에스겔22:7). 부모를 잃고 집이 없는 고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입양은 요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매우 존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한 행위이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을 실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숭고한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양은 고아를 돌보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 3. 진정한 부모됨

부모의 중요한 책임은 자녀를 잘 양육하여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다. 히브리 전통은 부부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 뿐 아니라 주의 율법대로 양육할 것을 강조한다. 양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열등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비록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만든 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조성하신 아이를 낳는 것으로 본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진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는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양육하는 책임을 지닌 청지기일 뿐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키우는 입양부모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받아 이 세상으로 보내도록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모됨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이 지닌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에 달

려 있는 것이다. 부모의 자격과 의무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간직해 왔던 믿음, 덕목, 가치를 전수하여 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만드는 핵심요소는 혈연에 대한 생물학적인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자신에게 맡겨 주셨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위탁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헌신된 노력이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입양에 대해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자기 몸으로 낳지 않았지만 입양한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자녀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사회로 내어보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양부모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 IV. 입양의 쟁점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입양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외입양을 지속해야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 공개입양이 나은 것인지 비밀입양이 나은 것인지 등 입양사업에는 매우 뜨거운 쟁점들이 있다.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입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계관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에서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에 대한 쟁점,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에 대한 쟁점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내입양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혈연과 가문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다. 그 동안 혈연중심적인 우리 문화에서 입양이란 부끄러운 것이고, 숨겨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국내입양은 매우 저조하였고, 많은 입양가정에서 비밀입양을 선호하였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입양 현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선 국내입양에 대해 반대하거나 국내입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 입양한 아이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아이 역시 입양 사실을 안다면 입양부모를 자신의 진짜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국내입양에 대해 찬성하거나 국내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신과 피가 섞이지 않은 연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입양한 자녀 역시 진정으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한다면 한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입양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입양한 아이가 나중에 입양부모를 자기의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진실로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국내입양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선,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은 혈연을 초월하여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고,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입양으로 인한 청소년 비행을 해결하는 방법은 입양의 회피가 아닌 입양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깨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입양부모는 입양한 자녀로부터 진짜 부모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입양한 것이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입양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진짜 부모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양을 회피하려는 마음보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에게 사랑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외입양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외입양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경제주의적 주장이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혼란기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국외입양을 어쩔 수 없이 허용했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이 20,000불에 다시 근접해 있고, OECD에 가입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외입양을 지속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둘째,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 유학이나 외국 여행을 갔을 때 한국 입양인이 백인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며 국외입양이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외입양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sup>11)</sup>. 셋째, 우리 핏줄, 우리 민족인 우리 아이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주장이다. 혈연중심적인 문화에서 우리의 자녀를 외국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외입양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복지 및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외입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입양은 그것이 국내입양이든 국외입양이든 아동 최대의 이익과 기본권 유지라는 아동복지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국외입양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상업적 성문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매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보호할 위탁가정, 그룹 홈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입양이 여전히 부진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외입양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차선책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국외입양의 찬성 및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선 국외입양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양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양의 목적은 아동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입양을 물질적, 경제적 환원주의로 보는 시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국가의 이미지와 국민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다. 국외입양을 통해 한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입양된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풍부하

11)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서양을 대표하는 신문들(LA타임즈,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Daily Telegraph)은 한국의 입양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한국의 여러 저널들도 고아수출국으로 국가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부끄러운 기사를 뒤이어 게재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 동안 공개되어 왔던 한국 아동의 이주에 대한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인터뷰를 꺼리게 되었다(Hubinet, 2004: 42).”

게 제공된다면 비록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국외입양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허용해야 한다. 셋째, 민족주의적 입장 역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핏줄과 민족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종과 국경과 혈연을 초월한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국외입양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다음으로 국외입양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복지 및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외입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외입양의 성공적인 측면만을 보는 순진한 논리다. 실제로 사회와 가족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살고 있는 국외 입양인들을 종종 발견한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잘못된 사회적 구조(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와 인간의 왜곡된 인식(입양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외국으로 입양만 보낸다면 입양인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순진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국외입양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현실에 안주하고 이를 고착시킬 수 있는 위험한 논리다.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요보호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국내입양, 위탁가정, 그룹 홈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지, 사회구조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국외입양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결과들을 차선책으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외입양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 입양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가, 사회 전반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확장될 수 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 민족적 관점, 자존심 문제 등의 이유로 국외입양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적 측면에서 본질을 빗나간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은 현실<sup>12)</sup>에서 잘못된 사회구조와 왜곡된 인간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국외입양을 지속하고 우선시하려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

12)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된 나라에서는 입양여부, 장애유무, 연령, 성별, 경제적 상태 등이 인간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히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입양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비밀입양 vs. 공개입양

비밀입양은 혈통이나 가문을 중요시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혈통에서 들어온 아동은 다른 가족원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비밀입양이 선호되는 이유로는 아동이 사생아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양부모들은 친부모의 위협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친부모들은 입양 보낸 자녀들의 위협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비밀입양의 한계는 첫째, 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써 아동은 입양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동은 입양이 부끄러운 일이므로 숨기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둘째, 아동이 성장하면서 입양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특히 아동이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됐을 때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방황하게 된다. 셋째,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는 양부모는 끊임없이 친부모인 척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 넷째,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밀입양은 한계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의 출신배경과 입양 사유 및 뿌리에 관한 정보 등 정체감 확립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의 알 권리를 포기당해야 한다. 다섯째, 비밀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이나 입양의 성공 경험을 사회에 확산하는데 장애가 된다.

공개입양은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입양가정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개의 범위가 가까운 가족 및 친지들에게만 알리는 제한 공개에서 아이의 교육기관, 관공서 등에까지 입양사실을 알리고 친부모와도 접촉을 하는 완전공개까지 다양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공개입양의 타당성은 입양이 입양 삼자(아동, 양부모, 친부모) 중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비밀입양의 한계로부터 나온다. 즉, 생물학적·유전적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며 기본적인 권리이고, 건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친부모, 양부모와 애착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관계에 혼동을 갖지 않으며,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 때 양부모를 더욱 부모로

받아들이고, 친부모들도 입양가정에 대해 알게 되면 보다 편한 마음으로 입양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양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양부모가 입양사실을 아동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최악의 경우 양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결핍된 이전 상황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둘째, 양부모에게는 아동이 친부모를 찾음으로 아동을 친부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되기도 한다. 셋째, 친부모는 입양 공개로 인해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후 가정을 이룬 경우에는 현재의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부도덕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거부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비밀입양과 공개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선 비밀입양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비밀입양이 선호되는 이유는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인 전통과 입양이라는 사실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혈연을 중시하는 비밀입양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아동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입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입양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비밀입양은 아동의 뿌리와 입양사실에 대한 거짓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밀입양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 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후퇴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양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비밀입양의 장점(차별받지 않는 사회)은 비밀입양을 유지함으로써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것이고, 비밀입양의 문제점(아동의 뿌리와 입양사실에 대한 거짓)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비밀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개입양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공개입양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양 삼자(아동, 양부모, 친부모)가 거짓 없이 진실 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입양이라는 제도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공개입양으로 발생하는 문제(입양인, 입양부모, 친부모의 불안과 두려움)는 공개입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개입양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공개입양을 금지함으로써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공개입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비밀입양을 반대하고, 공개입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찬성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현실적으로 입양사실의 공개는 사회가 입양 삼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을 수 있게 된 때(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많이 지니고 있으며,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었을 때)여야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무조건적으로 입양 삼자에게 입양사실의 공개를 권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양사실 공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입양사실을 공개한 입양 삼자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자연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차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일 것이다.

#### IV. 결론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사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으며, 국내입양, 국외입양, 비밀입양, 공개입양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입양의 본질, 국내입양 및 국외입양, 비밀입양 및 공개입양의 이슈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입양사업을 평가한다고 해서 국외입양이 100% 옳다든지, 비밀입양은 100%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와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이미'와 '아직', 하나님 형상과 죄인의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입양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 입양사업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sup>13)</sup>.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이고, 입양은 요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매우 존귀한 일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한 행위가 기 때문에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관점, 민족적 관점, 자존심 문제 등의 이유로 국외입양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적 측면에서 본질을 빗나간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외입양 그 자체에 대해 비판하기 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서 잘못된 사회구조와 왜곡된 인간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국외입양을 지속하고 우선시하려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입양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공개입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양사실 공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입양사실을 공개한 입양 삼자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자연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차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사업을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인종, 혈연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입양을 이해한 후, 이러한 이해 아래 적극적으로 입양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국내입양은 물론 제3세계 아동의 국내입양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입양사업에 있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 참고문헌

강준근·신민선 (2005). "입양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신앙과 학문』 10(2), 9-50.

13) 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형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사회에서 패배의식과 유토피아니즘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 권중돈·김동배 (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김세운 (1997).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 박기석 (2009).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우 (2007). “입양에 대한 재해석,” 『홀트사회복지연구』 8, 66-75.
- 신원하 (2003). “기독교 신앙과 입양 - 입양의 신학적 토대.” 『온누리교회 입양배우기 자료집』. 10-20.
- \_\_\_\_\_ (2009). “교만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 『신앙과 학문』 14(3). 177-206.
- 안재진 (2003). “우리나라 공개입양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 \_\_\_\_\_ (2004). “홀트아동복지회 국외입양사업 50년 - 평가 및 과제.” 『홀트사회복지연구』 4호 1-42.
- 양승훈 (2005).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오정수·정익중 (2008).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승구 (2004).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 현외성 (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경기: 양서원.
- 홀트아동복지회 (2008). 『2007 홀트연보』.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 Baker, J. (1979). "Social Conscience and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8(2). 177-206.
- Brandsen, C. Hugen, B. (2007). "Social Work through the Lens of Christian Faith - Working toward Integration." *Social Work & Christianity*. 34(4). 349-355.
- Erickson, Millard J. (1989). *The Doctrine of Humanity & Sin*. 나용화 외 역 (1993). 『인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1990).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Hollnstein, T., et. al. (2003). "Openness in Adoption - Knowledge of Birthparent Information and Adoptive Family Adjustment." *Adoption Quarterly*. 7(1). 43-52.
- Hubinette, Tobias (2004). "Adopted Korean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 the 'third space'," *Adoption & Fostering* 28(spring). 37-55.
- Kierkegaard, Soren (1844). *The Concept of Anxiety*. 임규정 역 (2000), 『불안의 개념』. 경기: 한길사.
- Nebuhr, Reinhold (1941a).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ume 1*.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_\_\_\_\_ (1941b).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ume 2*.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Price Karin (2005). "Best Interest of a Child: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Adoptions". *Social Work & Christianity*. 32(3). 248-262.
- Sire, James W. (1976).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 View Catalo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Stott, John R. W. (1986). *The Cross of Christ*. 황영철·정옥배 역(2007).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울: IVP.
- Temple, William (1942). *Christianity and Social Order*. 김형식 역 (2000). 『기독교시민의 사회적 책임』. 서울: 인간과복지.
- Wolters, Albert M. (1985). *Creation Regained -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 (2002). 『창조-타락-구속』. 서울: IVP.
- Wolterstorff, Nicholas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2008).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서울: IVP.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0. 1. 21 인터넷 기사.

## Abstract

### Understanding and Evaluations of Adoptions

– In Terms of Christian World View

Chang-Woo Park(Kwan Dong University)

People see the world differently. Christians are those who view the world and human being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which is based on the Bible. They take the Bible as gospel and put it into practice. Adoption provides a permanent substitute family to a child whose biological parents are unable to bring up their child or have no will to do so. It makes a child and an adult who are not biologically related with him/her become 'parent-child' in legal and social process. Adoption includes laws, systems, and services that enable them to have the same benefits and qualifications as a biological parent-child. Depending on how such adoption is seen, it can be a shame and secret or a pride and honor. Our society has considered adoption as shameful and confidential due to the kinship culture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 about adoption. Such negative perceptions have applied to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However, Christians need to see adoption positively through Christian understanding. Because Christians adopted by Christ, are adopted as children of God. Adoption is not only a very noble way to take care of children in need, who are weak in society, but also a pious behavior to obey the Lord's will.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being parents is not a biological instinct for kinship but a belief that God has placed a child in one's custody and devoted efforts to faithfully respond at His reques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Christians do not criticize international adoption itself, but the reality which give priority to international adoption. In order to change this situation, Christians should make appropriate efforts to change distorted social system and prejudice. Secondly, Christians should make appropriate efforts not to be treated adoption-triangles who are open the adoption's fact with discrimination.

Key Words :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welfare, adoption, social welfare